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박 선 미

조우 심리상담센터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여대생의 성적인 문제인 원하지 않은 성교나 임신, 강간,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변인인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 일차적으로 경험적인 요인인 성피해, 학대, 성교경험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차적으로 경험적인 요인을 통제 한 후에 심리적인 요인인 성폭력에 대한 통념,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피험자는 중부권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 대상이었고, 최종적으로 24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 성교경험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데이트폭력 허용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이전의 성적, 신체적 피해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교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교경험이 있는 경우 성적 자기주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대생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다. 넷째,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경험적인 요인인 여대생의 성교경험을 통제 한 후에도 여전히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이 고유한 변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개입을 통해 성적인 자기주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성적인 문제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논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주요어: 성적 자기주장, 강간통념, 성폭력 통념, 성피해, 성폭력 예방

* 이 논문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Tel : 041-730-5414, E-mail : 1058@paran.com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로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이지연, 이은설, 2005). 즉, 자기주장이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적이고 표현적인 능력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을 지키는 방어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Mackenzie & Stoljor (2000)는 성적 자율성이란 성적인 상황에서 외부와 내부의 조건들에 자신의 방식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그 상황을 피해가는 능력인 자기주장은, 성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혀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난 여학생이, 우발적인 성 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개인적 능력이기도 하다(이선경, 2000).

Patricia 등(1997)은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도구(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를 개발하면서 성적 자기주장을 주장, 거절, 예방의 세 가지 하부 요인으로 나누었다. 주장 요인은 파트너와 성 접촉 상황에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 성적인 접촉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절 요인은 파트너와의 성 접촉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 접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은 성교 시 피임에 관한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최명현, 2004).

여대생의 정신건강과 성적자기주장과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응낙 동기가 높고(유외숙, 2004), 우울할수록 자기주장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이 낮을

수록 원치 않는 성교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장순복, 1998). 또한 이선경(2000)의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살펴볼 때, 이성교제시 성 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정도를 보면 성 접촉이 진행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평균값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로, 최명현(2004)의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은 성교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 최초에 비해 최근의 이성교제 시 거절하는 능력이 낮아지며, 성적 자기주장에 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적 자기주장은 위험한 성행동의 횟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성적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안전하지 않은 삽입성교, 항문성교와 위험한 파트너와의 성교율을 낮춘다. 이것은 콘돔 사용과 관련되어, 성적으로 자기주장적인 여성은 삽입 성교율과 콘돔 사용 없는 삽입 성교율이 낮으며, HIV감염의 가능성이 높거나 다양한 파트너와 성교를 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성교율이 낮다(Harlow et al, 1993).

국내의 전국의 십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장순복 외(200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데, 성접촉, 성교, 임신, 유산 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 십대 여성들보다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특히 이성교제를 하는 여학생들 중 성접촉을 경험한 군의 성적 자기주장정도가 성접촉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성접촉의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더욱 유의하게 낮아졌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억압과 강요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주로 데이트 상대로부터 피해가 발생

하는 경우가 많으며(Rohini & Christine, 2006), 미국과 같은 경우 대학생의 23%정도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milio & Momicca, 2008). 이지연 · 이은설(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수용이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 주장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성폭력 피해 상황으로 귀결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의 경우 데이트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실정으로(Luthra & Gidycz, 2006), 국내의 여대생들도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능력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적 자기주장의 바탕이 되는 성적 자율성이 저하된 경우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성관계를 본인의 의지에 따르지 않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갖게 되어 성행동에 대해 주체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학생의 성지식, 성 태도,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최명숙, 하나선, 2004)에서 보면 처음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았을 때 ‘결혼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가 가장 많았으나(46%),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순간적인 충동을 느껴서’와 ‘상대방의 청에 못이겨서’에도 각각 21%가 응답하였고, ‘상대방이 강제적으로’도 2%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 경순과 함미영(2000)의 연구에서도 ‘강제로 끌려서’와 ‘피임에 빠져서’가 21.2%로 서로의 진정한 동의가 아닌 한쪽의 순간적인 충동과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순복 · 이선경 · 전은미(2002)의 연구에서는 십대의 여학생의 성 경험 여부에 따른 성문제 예방대책으로서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장순복 · 이선경 · 김영란(2003)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이 경험하는 이성교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행동 관련 의사소통 기술 획득을 위해 실험적으로 개발된 3시간 분량, 6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은 각각 성적 자기주장능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아울러 6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이 3시간 분량보다 상대적으로 성적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현실요법을 적용한 고교생의 성적 자기결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된 강돌순(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임미순(2009)의 연구에서는 현실요법을 적용한 성적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성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과 성행동 관련 의사소통기술획득 프로그램, 현실요법을 적용한 성적 자기결정 프로그램 등이 성적 자기주장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적 자기주장은 이성교제 중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성적 자기주장의 행사 능력이 여대생들에게 스스로의 몸을 돌보기 위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성교제와 성행

등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 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성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변인인 성적 자기주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련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 데이트폭력 허용도, 이전의 성적 폭력·신체적 폭력 피해경험, 성교경험,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전통적인 성역할 수용 등이 있다. 이지연·이은설(2005)의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같은 심리적인 변인들이 데이트상황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미 성적 요구에 대하여 무력감을 경험하였거나 성적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하여 거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욕구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해자의 눈을 통하여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규정하여 관계를 맺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고, 성 활동을 애정과 친밀함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능력이 낮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의 피해 경험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련 인지와 같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수용하고, 신체적인 폭력의 피해 경험은 대인관계나 이성관계에 있어서 폭력을 잘못된 수단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하여 폭력 허용도가 높아지며, 성적 자기주장능력이 낮아져, 성인이 된 후

원치 않는 성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대학생의 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등에 관한 것으로, 예방적인 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예방적인 행위능력과 관련된 요소인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경험적(성피해, 학대, 성교경험)·심리적 요인들(성폭력에 대한 통념), 데이트폭력 허용도)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의 성적 피해경험과 학대경험, 성교경험과 같은 경험적인 변인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경험적 요인을 통제 한 후에도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심리적인 변인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성적 자기주장의 각 하위요소인 성적 접촉과 예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여, 성적 자기주장능력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다룬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개념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통념에 대한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부지방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과목 담당 교수의 동의를 얻은 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의 윤리보호에 의해 설명한 후 이루어졌다. 또한 의무적인 설문조사가 아님을 설명한 후 성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인만큼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총 270명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응답이 완전하지 못한 설문지 3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40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18~24세까지였고, 평균 나이는 20.04세(SD=1.37)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43.3%(104명), 2학년은 27.1%(65명), 3학년은 19.2%(46명), 4학년은 10.4%(25명)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의 횟수는 한명도 사귀어보지 못한 응답자가 24.2%(58명), 1~2명 30.4%(73명), 3~4명 20.5%(49명), 5~10명 15.7%(38명), 15~23명 1.6%(4명) 으로 나타났다. 성교 경험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78.3%(188명), 성교경험이 있는 경우가 21.7%(52명)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성적 자기주장

성적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는 Patricia 등 (1997)에 의해 개발되고 표준화 작업이 된 것이며, 이 척도는 원하는 성적 접

촉을 주장하는 것,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것, 일정한 파트너와의 성교에서의 임신과 성병 예방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명현(2004)은 이 척도를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성적 접촉을 주장하는 요인을 뺀, 원치 않은 성적 접촉 거절 요인 6문항과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 6문항을 포함하여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성적자기주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고, 성 접촉에 대한 거절요인의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은 .87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 수용 척도를 토대로 이석재(1999)가 개발한 강간통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4개 하위영역(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9점 척도(1:매우 부정~9:매우 긍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허용도

이성교제간 폭력허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의 폭력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1995)를 장희숙·조현각(2001)의 연구에서 변안해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 남현미(2003)가 번역된 의미에 있어 모호한 것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가지 상황아래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성피해

성적인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장화정(1998)이 개발한 아동학대 행동척도 중 오혜정(2004)이 성학대 영역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경미한 성폭력 문항 8문항과 심각한 성학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0문항으로, 발생 횟수를 6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점수의 합은 평균값을 내어 피해정도를 측정하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

아동기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Straus(1995)가 제작하여 사용한 PCCTS(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 척도를 기초로 오혜정(2004)이 수정·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정서폭력(5문항), 신체폭력(9문항), 방임(10문항)의 세가지 하위영역을 사용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방임을 제외한 정서폭력과 신체폭력 척도만 사용하였고, 7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

타났다.

분석절차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심리적 요인(강간통념, 데이트폭력 허용도), 경험적 요인(성적 피해경험, 학대경험, 성교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경험적 요인이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심리적 요인이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경험적인 요인을 통제 한 후에도 심리적인 요인이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요인 중 접촉에 대한 자기주장과 예방에 대한 자기주장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심리적인 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연구의 주요 변인인 성적자기주장과 강간통념, 데이트폭력 허용도, 성적 피해경험, 학대경험, 성교경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강간통념($r=-.24, p<.001$), 성교경험($r=-.47, p<.001$)과 유의한 부

표 1.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과 강간통념, 데이트폭력 허용도, 성피해, 신체피해의 상관관계

	1	2	3	4	5
1. 성적자기주장	-				
2. 강간통념	-.24***	-			
3. 데이트폭력 허용도	.14*	.27***	-		
4. 성피해경험	-.12	-.03	.16*	-	
5. 학대경험	-.03	-.03	.09	.41***	-
6. 성교경험	-.47***	.12	.19***	.38***	.12

* $p < .05$. ** $p < .01$. *** $p < .001$.

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허용도 ($r = .14, p < .05$)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주장성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적 요인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요인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성적 자기주장에 이전의 경험적 요인인 성적 피해경험, 학대경험, 성교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 요인인 성적 자기주장에 강간통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성교경험($\beta = -.47$)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 회귀선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F = 64.72,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성교경험의 설명량은 22%로 나타났다. 이는 성교경험이 있을수록 성적 자기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강간통념($\beta = -.24$)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 결과 이 회귀선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F = 14.79,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강간통념 총 설명량은 6%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통념이 높을수록 성

표 2.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경험적요인(성적 피해경험, 학대경험, 성교경험)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성적자기주장				
	B	β	t	$R^2(Adj. R^2)$	F
독립변인					
성교경험	-8.43	-.47	-8.05***	.22(.22)	64.72***

*** $p < .001$

표 3.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강간통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성적자기주장			
	B	β	t	R ² (Adj. R ²)	ΔR^2	F
강간통념	-.08	-.24	-3.85***	.06(.06)	.06	14.79***

*** $p < .001$

적 자기주장이 낮아지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적 요인을 통제한 후 심리적 요인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경험적 요인은 사후에 변화가 불가능한 변인이지만 심리적 변인들은 개입을 통해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험적 요인 중 유의미한 변인이었던 성교경험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강간통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와 같은 심리적인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알기위하여 성교경험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성교경험을 통제 한 후에도 여전히 강간통념($\beta = -.18, p < .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성교경험이 22%, 강간통념이 3%를 추가적으

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회귀선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F = 38.53, p < .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강간통념의 정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주는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통념의 하위변인과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에 대한 자기주장인 ‘성 접촉 거절요인’과, 성병과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과 성병 예방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성 접촉 거절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심리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와 같이 성교경험의 요인을 통제 한 후 강간통념 하위개념인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표 4.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성교경험요인을 통제한 강간통념,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투입	독립변인	종속변인		성적자기주장			
		B	β	t	R ² (Adj. R ²)	ΔR^2	F
1차	성교경험	-8.04	-.45	-7.76***	.22(.22)	.22	64.72***
2차	강간통념	-.06	-.18	-3.14**	.25(.24)	.03	38.53***

** $p < .01$ *** $p < .001$

표 5. 여대생의 성 접촉 거절요인에 대한, 성교경험을 통제한 강간통념 하위변인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투입	종속변인 독립변인	성적 접촉에 대한 거절요인					
		B	β	t	$R^2(Adj. R^2)$	ΔR^2	F
1	성교경험	-3.71	-.39	-6.75***	.18(.18)	.18	50.81***
	이성행동오해	-.17	-.15	-2.07*	.24(.23)	.06	
2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11	-.15	-2.05*	.25(.24)	.01	26.10***

* $p < .05$ *** $p < .001$

허위조작’,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지각’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성교경험의 요인($\beta = -.39, p < .001$)을 통제한 후에도 여대생의 성 접촉 거절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강간통념의 하위요소인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beta = -.15, p < .05$)’와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beta = -.11, p < .05$)’이었다. 이 회귀선의 적합도는 유의미한 것($F = 26.10,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및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과 같은 통념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성적 접촉에 대한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성적 자기주장에 총 7% 정도의 설명량을 가지고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한편, 성병과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심리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와 같이 성교경험의 요인을 통제 한 후 강간통념 하위개념인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지각’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성교경험요인($\beta = -.40, p < .001$)을 통제한 후에도 여대생의 임신과 성병 예방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강간통념의 하위요소는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beta = -.16, p < .01$)’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선의 적합도는 유의미한 것

표 6. 여대생의 임신과 성병예방요인에 대한, 성교경험을 통제한 강간통념 하위변인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투입	종속변인 독립변인	임신과 성병예방요인					
		B	β	t	$R^2(Adj. R^2)$	ΔR^2	F
1	성교경험	-4.22	-.40	-6.74***	.17(.17)	.17	48.14***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13	-.16	-2.71**	.20(.19)	.03	

** $p < .01$ *** $p < .001$

($F=28.41,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간의 피해자가 음란하며 강간에 대해 허위조작을 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성적 자기주장성에 추가적으로 3%정도의 설명량을 더 가지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짐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성적인 문제와 곤란,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인 조절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성적 자기주장의 능력이 높으면, 잠재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처와 조절을 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성적 상황에서 거절을 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피임과 성병의 예방으로 인해 곤란한 성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성적 자기주장의 획득은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연구결과와 논의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주요 변인인 성적자기주장과 강간통념, 데이트폭력 허용도, 성적 피해경험, 학대경험, 성교경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강간통념, 성교경험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허용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서, 여대생의 경우 강간통념은 낮고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 성적 자기주장이 높으며, 데이트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성적인 자기주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트폭력의 경우, 질문지의 성격이 가해와 피해의 입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연구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성적 자기주장에 이전의 성적 피해경험, 학대경험, 성교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성교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22%로 이 회귀선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교경험이 성적 자기주장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 접촉에 따라 자기주장정도가 낮아지며(이선경, 2000; 장순복 외, 2000), 성교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의 이성교제시 성적 자기주장능력이 낮아진다(최명현, 2004)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반면 성피해경험과 학대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되는 바이다. 이는 민감한 경험에 대해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일괄적으로 수거한 연구 방법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이전의 피해요인들을 하위요소별로 나누어 성피해를 경미한 성피해와 심각한 성피해로 나누고, 학대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로 나누어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성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설명량이 4%정도로 나타났고, 회귀선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성피해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으나 심각한 성피해의 경험이 있

을 경우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대경험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전의 학대경험과 성적 자기주장 사이를 매개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인 정서인식이나 표현억제, 이성관계 만족도, 애착, 우울, 불안 등(김혜인, 2007; 박윤경·김은정, 2007; 황은수·성영혜, 2006)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강간통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적 자기주장성에 강간통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6%로, 회귀선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 위주의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적 피해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성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간통념이 성적 자기주장을 약화시켜 성폭력 피해상황을 유발하는데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지연과 이은설(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실제 데이트폭력피해나 가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변인인 성적 자기주장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데이트폭력의 허용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이 신체적·언어적·성적인 폭력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스스로 폭력을 사용해도 정당한 것인가를 묻는 문항에, 피해가 아닌 가해의 입장으로 방어적 응답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적 자기주장에 강간통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와 같은 심리적인 변인이 경험적 요인인 성교 경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성교경험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강간통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회귀선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적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강간통념의 정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주는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상담자나 교육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인 과거의 경험적인 요소를 통제 하고도,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의 심리적 변인인 강간통념이 변화하도록 돕는다면 성적 자기주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로 이규은(2006)의 연구에서 강간통념을 낮추는 것이 성폭력 예방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 성폭력상담원을 대상으로 강간통념 수용도를 낮추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성적 자기주장의 하위요소인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에 대한 자기주장인 ‘성 접촉 거절요인’과, 성병과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과 성병 예방요인’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심리적 변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대생의 성 접촉 거절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강간통념의 하위요소는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와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의 사회적 통념을 가진 정도와 강간의 피해자가 음란하며 강간에 대해 허위조작을 할 것이

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 거절하는 성적 자기주장성에 총 7% 정도의 설명량을 가지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회귀선의 적합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의 문항들이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돼”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다’,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하여야 한다’,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지극히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대생들이 자신의 거절을 이성이 허락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통념을 가지고 남자의 입장에서 성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을수록 성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자기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의 요구와 행동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 조작’의 문항들이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강간을 보고하는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많은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싶은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다’와 같은 강간 피해자가 음란할 것이라는 통념과, ‘보고된 대부분의 강간사례는 임신된 사실을 알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여성이 날조한 것이다’,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동기로 거짓말을 한다’와 같이 강간 사례는 피해자가 거짓말 한 것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성폭력에 대해서 이러한 통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상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장 능력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비록 설명력이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강간과 동떨어진 세계에 있다고 지각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유발되는 결과를 성적인 피해경험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성병과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심리적인 변인을 알아보았다. 결과를 고려할 때, 강간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성병과 임신의 예방을 소홀히 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 조작’ 문항에 대해 강간 피해자들이 보고하는 결과들은 사회에서 날조된 것으로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피해자가 음란한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무력한 여성적 입장에서 응답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부정적인 여성상과 같은 심리적인 변인이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주장이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 조작의 양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양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중부지방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여대생의 경향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생뿐만이 아닌 직장 여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남성들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변화한 도시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과 지방의 여대생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기숙사와 자취와 같은 거주형태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하여 차이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법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개인의 성적인 측면과 같은 사적인 영역을 조사할 때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사전 면접이나 실험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강간통념의 하위요소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겠으나 실질적인 피해와 가해에 관련된 연구나, 이성교제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 계획 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심리적 변인들의 설명력이 유의하나,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성적 자기주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세부적인 개인적 경험과 개인의 심리적 요소, 사회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이나, 분노통제, 성적 스크립트, 애착유형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나, 성적 경험 정도나 성교육 정도에 따른 차이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한점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성적 자기주장성과 더불어 강간통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 이전의 피해경험과 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규명하였으며, 성적 자기주장성에 이전의 성피해 경험과 학대 경험, 성교경험과 같은 경험적인 요인을 통제

한 후에도 여전히 강간통념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상담자나 교육자가 경험적인 요소에 대하여 재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의 심리적인 변인인 강간통념을 변화하도록 돕는다면 성적 자기주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으므로 성교육 프로그램에도 본 연구의 성적자기주장에 관한 자료를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주로 정신건강, 성격, 학업과 진로 및 가족간의 문제 등으로 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약 70%정도가 이성교제와 얽혀있을 정도로 이성문제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중 성관련 문제에 대하여 고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보고를 바탕으로 (김금운·윤가현, 2004; 유외숙, 2004), 여대생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성폭력과 성피해는 몇몇 소수나 특수한 상황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공공장소나 학교, 직장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행동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며 그를 위한 성적 자기주장성의 획득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후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들순. (2005). 현실요법을 적용한 고교생의 성적 자기결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김금운, 윤가현 (2004) 대학생들의 연애관계에서 결별을 예측하는 관계적 요인. 인간발달연구, Vol.11, No.1.; 110-112
- 김혜인. (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 정서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 (2003).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경 · 김은정. (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애착과 갈등대처전략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6-267.
- 오혜정. (2004).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부폭력노출 경험이 성장 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외숙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대학생 중심으로. 서울여대 특수심리치료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규은. (2006). 성폭력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이 성폭력에 대한 지식, 성적 자율성 및 강간통념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12-4 301-307
- 이석재. (1999). 강간통념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131-148
- 이선경. (2000). 이성교제하는 십대 여학생의 성 접촉과 자아존중감, 자기주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65-282.
- 임미순 (2009). 현실요법을 적용한 성적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내부-외부통제와 성적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순복 외. (2000). 십대 소녀의 임신률, 예방대책. 청소년 보호위원회 보고서.
- 장순복, (1998). 기혼여성의 성만족. 대한간호학회지. Vol.28 No.1: 201-209.
- 장순복, 이선경, 김영란 (2003). 여고생의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 참여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3(5): 659-667
- 장순복 외. (2002).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측정 도구 개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 106-115.
- 장화정. (1998). 아동학대 평가 척도 개발.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희숙 ·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 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7-202.
- 최명숙, 하나선. (200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318-330.
- 최명현. (2004).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은수 ·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연구 Vol. 9 No.2, 73-89.
- Emilio, C, U. & Monica, D, U. (2008). Sexual

- relationship power as a mediator between dating violence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mong colleg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9), 539-563.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ume 10, Number 4: 351-377
- Harlow, L. L., Quinam K., Morokoff, P. J., & Grimleym D. M. (1993). HIV Risk in Women: A Multifaceted Model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1: 3-38.
- Luthra, R., & Gidycz, C. A. (2006).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17-731.
- Mackenzie, C, & Stoljor, N. (2000).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tricia. J. M., et al.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Rohini, L., & Christine, A, G. (2005). A Prospective Analysis of Sexual Assault Perpetration: Risk Factors Related to Perpetrator Characteristic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0), 1325-1348.
- Straus, M. A. (1995).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PCCTS), *Journal of Family Issues*.
- 1 차원고접수 : 2012. 5. 6.
심사통과접수 : 2012. 6. 17.
최종원고접수 : 2012. 6. 20.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to the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en

SunMi Park

Jowoo Counseling Center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study factors of affecting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in order to prevent university students from sexual problems. The factors include empirical factors such as sexual damage, abuse, and sexual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 common idea of sexual violence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In addition, regression analysis among subordinate factors was carried out to study how a common idea of sexual violence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affect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when empirical factors is under same control. For these studies, 240 data obtained by surveying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located in a middle region of South Korea were analyzed.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through the collected data. SPSS 15.0 Program was used for these analyses. There are five abridged consequences of this research. First of all, there is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and both a common idea of sexual violence and sexual experience, but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Secondly, personality and physical damage in the past don't significantly affect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but sexual experiences do. Thus, The more sexual experiences are, the lower the level of sexual assertiveness is. Thirdly, a common idea of sexual violence of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significantly affects sexual assertiveness of them. Fourthly, when sexual experiences, which is the one of the empirical factors, of female students of universities is under same control, a common idea of sexual experience still affects sexual assertiveness of them. Finally, 'misunderstanding of the opposite sex's behavior' and 'a false report of lechery and rape' affect disallowance of sexual relations. That is, this common idea of sexual violence such as the misunderstanding and the false report makes it difficult to disallow sexual intercourse. Through these consequences, proposals for further discussion and study are included in this research.

Key words : Sexual Assertiveness, Rape Myth,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Sexual Violence, Abuse